

지역어문학의 탈경계적 개념 계열 구성에 관한 시론

- 문학의 대중성에 관여된 개념 도식의 성찰을 겸하여

장일구*

1. 문제와 단서
2. 지역 | 언어 | 문학_ 개념 계열의 경계적 표지
3. 일상어 | 문학어_ 대중 문학과 문학의 경계
4. 아날로그 | 디지털_ 언어적 분절과 문학적 디지털 전략
5. 장소 | 공간_ 지역적 경계에서 횡단적 탈경계로
6. 문학적 혼성 공간의 위상_ 지평

국문초록

문학은 언어 수행의 한 국면이다. 언어는 문학적 수행을 통해 상투적인 언어 수행과 다른 의사소통의 효과를 구현하여 진전의 계기를 얻는다. 이때 일상어와 다른, 문학 고유의 영역에 특화된 언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학 언어’의 자질을 잘 구현한 미학적 자질을 입증하는 문학의 정통성에 대한 개념 도식은 무의미하다. ‘지역 문학’이나 ‘대중 문학’ 등과 같이 문학에 음수 표지가 부가된 부정향의 개념 도식으로 규정된 담론의 표제들은 허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에 관여된 중심의 이념에서 파생된 개념 도식이 온당한지 진단하고 부당한 이념의 작동을 들추어 흐트러뜨리는 일이 긴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공정을 환기하는 시론에 상응한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지역어문학, 지역어, 지역 문학, 대중 문학, 지역, 대중, 개념 계열, 개념 도식, 탈경계, 해체)

1. 문제와 단서

중심의 이념항에서 파생된 문학의 위계적 질서에 대한 재편을 위해 언제부터인가 ‘지역어문학’이 문학장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여러 방면에서 그 위상을 고양하려는 담론적 실천이 활성화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펴는 일이 범상하게 여겨지는 듯하다. 일견 제안이나 분석의 단서인 ‘지역어문학’이 자명한 방법적 술어로 수용됨으로써 이에 관여된 개념의 지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아서 방법상 난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생긴다. 단순히 대척점에 있는 개념의 파생항들과 변별되는 점을 부각시켜 중심항에 관여된 ‘중양·정통·고급’ 등과 같은 이념적 계급(class)에 특권을 부여하는 데 동원되는 주변적이고 열등한 계급적 상대항 역할을 부여한 저의가 지역에 관한 담론적 실천에 반영된다. ‘지방·통속·대중’ 등의 표지가 부가된(marked) 표제하에 진행되는 거개의 수행이나 회자되는 담론들에서 저러한 중심의 이념 기제가 작동한다.

이 글은 ‘지역어문학’에 관여된 개념항들을 구성적 개념(constitutional notion)으로 전제하고 각 항이 엮여 파생되는 개념의 계열(paradigme)을 조망하려는 시론이다. 개념 계열의 경계가, 넘나들 수 없게 가로막은 벽의 양태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가로지를 수 있게 하는 문턱(*limen*) 양태라는 논리적 방증을 구하는 데 주력하려 한다. 이러한 지향은 중양·중심의 거대 서사에 대해 이른바 글로컬(global)에 대한 심상 표지로서 제안된 ‘지역어문학’의 개념적 위상에 대한 섬세한 해부가 요구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지역’이라는 부가 표지가 붙어 개념의 운용 범위와 그 가치가 원천적으로 주변적인 것으로 한정되는 방계의 표제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령 지역어문학의 개념 도식은 ‘대중 문학’이나 문학의 대중성에 관한 개념 도식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지어진 쟁점에 작동하는 개념 도식의 계열을 돌이켜 재편할 단서를 모색해 봄 직하다.¹⁾

- 언어 예술이라는 문학의 언어적 변별 자질에 관한 관심, 혹은 언어의 문학적 구현에 관한 개념 도식들에 관여된 문제항들.
- 어문학 혹은 언어·문학이라는 개념 조합의 항구한 국면들.
- 언어 일반과 문학 언어의 구분을 전제로 한 언어·문학에 관여된 담론적 실천들 저변에서 작동하는 미학적 이념항들.
- 미학적 이념항에서 파생된 문학의 정통성에 대한 심상과 이에서 일탈한 것으로 판정된 대중 문학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한 양항 간의 위세에 관한 논쟁이나 문학의 실용성에 대한 예단.
- 디지털 기술 기반 미디어의 발달로 빚어진 문학적 활동의 분화 양상에 관한 오해 혹은 오판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적 정향을 두어 봄 직하다.

1) 지역어 문학인가, 혹은 지역 어문학인가. 어느 편이든, 중심과 주변의 가치적 이원화에 관여된 이념항이 전제로 작용한다. 이로써 완고하게 굳어진 개념의 지층을 온당한 방식으로 시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지는 ‘언어·문학’에 관한 담론적 실천들로 드러나는 문제의 지점들을 들춰 필요도 생긴다. 이는 실체에 대한 개념 계열의 중심화 방식에 대해 구성적 개념 계열의 구심들을 연결하는 방법적 바탕을 얻으려고 입장을 전향하는 데서 동력이 발생한다. 이 동력은 대중(의/적) 문학, 문학의/적 대중성 등과 같은 대중 문학에 관여된 술어의 개념 경계를 이해하는 데도 작용한다.

- 언어·문학이라는 개념 도식의 해체와 재편에 대한 요구들.
- 언어·문학의 경계와 이행에 관여된 개념 계열의 재구성.
- 여기에 더해진 표준어·지역어에 관한 담론적 실천들에 대한 섬세한 분석.
- 중심의 언어에서 이탈한 문학의 언어에 관한 온당한 이해.
- 문학은 태생적으로 표준과 규율과 정형에 대한 낯설게하기 책략이라는 단서.
- 새로운 중심을 상정하려는 문학적 권위에 대한 경계와 전향적 모색.²⁾
- 문학 언어라는 실체에 대한 개념 계열의 해체와 재구성.
- 독자의 위상 변화와 미학적 대중주의의 개념 계열에서 얻은 해석 공동체의 구성 조건.
- 해체가 파괴가 아니듯, 경계의 이행이 경계의 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

2. 지역 | 언어 | 문학_ 개념 계열의 경계적 표지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 자체로서 오롯이 특정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의사소통 회로에 부쳐져 의미의 여지를 열어 효력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모습이 확인된다. 언어는 수행의 공정을 통해 드러나는 실천적 현상인 것이다. 그만큼 고정된 틀로 환원하여 자명한 구조를 추출하는 것만으로 그 자질이나 기능 등에 온전히 접근할 수 없다.

구조화나 유형화는 언어 능력에 관여된 국면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방편이지만 언어의 수행적 국면에 관여된 여러 면들을 잉여적인 것으로 판정하여 분석에서 제하는 까닭에 최적의 방편이라 단언할 수 없다. 언어

2) 특히 '다중심'이라는 표지를 앞세운 담론적 실천에 드러난 중심의 이념향을 경계할 일이다. 중심을 대체할 다른 개념향을 세우는 것은 중심의 자리를 새로이 옮기는 일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는 데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중심은 여럿일 수 없다.

의 규율 또는 규범을 전제로 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언어 능력 층위 문법의 올바른 적용과 그릇된 적용을 나누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위(T/F)를 결정할 절대치에 대응될 중심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어는 중심어 혹은 표준어에 상대되는 말인 ‘방언’을 대체하는 술어로 제시된 것이지만 실상 주변적이고 잉여적인 것일 뿐 그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다. 중심은 유일한 절대치로 환산되는 만큼 주변적인 것에 값을 매겨 상대치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이미 중심의 절대적 위상이 손상되는 터다. ‘지역어’는 ‘언어’에 부가 표지가 붙은(marked) 조작적 개념으로서 언어의 음수항이다. 음수항을 대입하여 산술하는 것은 관련 현상의 가치를 무화하는 식을 세우는 것이다. ‘방언’의 뉘앙스를 소거할 요량으로 교체한 그 말로써 변별될 자질에 대한 기대는 막연하거나 무색하다. 오히려 표준어·중양어·중심어에 대항하는 ‘지역어’가 새로운 중심에 세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며 이를 적용한 담론적 실천들에서 그러한 우려가 실로 확인된다.

탈중심은 새로운 중심을 짓는 일이 아니라 여러 ‘구심’을 짓는 것이며, 중심의 해체는 중심의 파괴가 아닌 중심에 관여된 개념 계열을 재편하는 일이다. 이는 중심의 상정으로써 파생되는 영역의 위계 질서, 그리고 이로써 조장되는 확고한 가치의 서열 관계를 해체하는 거점적 수행으로 이어진다. 언어의 중심 대신 언어 수행의 여러 구심에서 조망 가능한 현상을 개념의 계열로 구성하는 일은 ‘지역어’라는 새로운 중심의 가치를 앞세우는 일과 전략적 지향이 다르다. 하향식(top-down)의 개념적 수직 계열화가 아니라 상향식(bottom-up)의 병렬적 개념 네트워크를 계열에 편성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현저히 유효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가령 문학의 언어를 사회·계층 방언의 한 형태에 편성하는 것은 언어의

중심을 전제로 한 표준어에 관한 개념 도식이 유효할 때 가능한 일이다. 문학에 쓰이는 언어가 통상 쓰이는 언어와 다른 형식과 자질을 지닌 실체라고 보는 전제가 우선 개재해 있다. 여기에 언어 또한 일정한 영역에서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가 더해진다. ‘문학 언어’는 실제적 개념의 조합으로써 지어진 조작적 술어이다. 그 조작 회로의 접점을 재편하는 데 따라 해체할 수 있는 술어인 만큼, 절대 기준의 층위에 구축된 완고한 구조를 확인할 길 없다. 그러므로 문학의 언어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비표준의 특수한 형태를 띠는 방언이라고 규정할 근거나 방도가 없다.

이로써 일반 독자를 능가하는 역량을 갖춘 문학의 미학적 자질에 정통한 ‘슈퍼 독자(super reader)’³⁾를 상정하여 일상의 상식 수준에서 텍스트를 수용하는 데 그치는 독자 대중을 낮잡아 보는 시선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슈퍼맨이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 지은 가상이듯 슈퍼 독자인 텍스트에 전지한 독자를 가장한 투사체일 뿐 실로 있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도 된다. ‘안락의자에 앉은 독자’라고 해서 진중한 해석 없이 주어진 의미를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한 독자를 숭배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응시킬 일은 아니다. 예리하고 정확한 비평 활동에 쓰이는 뇌가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아는 이라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독자(reader with flesh and blood)’를 아무 생각 없고 맹목적인 대중의 심상에 대응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읽고 비평하는 수행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의 작동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뇌·신경 과학의 성과에 바탕을 둔 인지 과학의 중요한 단서이다.⁴⁾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비의로 이루어진 고급 문학 텍

3)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Harvard UP., 1980, p. 63 참조.

4) 인간의 의식은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정보 방송이다(Stanislas Dehaene, *Consciousness and the Brain*, Penguin Books(Kindle edition),

트라는 실체를 찾을 길 없으니 그러한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독자가 있다는 생각이 당췌은 것이다.

문학의 언어에 관한 개념을 별도의 층위에 계열화하는 것은, 문학과 언어의 오뵑한 실체적 본질을 확고히 전제하는데, 과연 온당한지 문젯거리이다. 특히 ‘일상어’와 변별되는 ‘문학어’라는 술어는 언어에 대해서도 문학에 대해서도 각각 실체적 개념 도식으로써 구획하여 서로 단절된 형태와 자질로써 규정하려는 부당한 전제를 앞세워야 성립 가능하다. 이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언어, 문학 각각의 실체를 검증할 수 없는 터에다 문학에 쓰이는 언어와 일상에서 두루 쓰이는 언어가 양상 면에서 변별 가능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정황에서, 넘나들 수 없는 경계가 확고한 술어로서 현상의 면면을 환원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는 없다.

언어의 유형화를 꺾하는 개념 도식은 경계를 넘나드는 수행의 국면을 온전히 포착하는 시야를 흐린다. ‘방언’도 ‘지역어’도 ‘지역어 문학’도 실체 없는 수행적 국면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음수항 표지를 부가한 이름을 붙여 실체인 양 위장한 술어이다. ‘문학 언어’도 ‘어문학’도 ‘지역 어문학’도 마찬가지로 음수항 표지가 부가된 주변적이고 잉여적인 실체에 불과하다. ‘글로벌’이라고 한정하든 ‘글로벌’과 ‘로컬’의 확고한 경계를 전제로 조작한 ‘글로벌’ 개념 계열에 귀속될 뿐이다. 대중(성)을 어느 편에 귀속된 개념 도식에 재편하려는 담론적 실천 또한 마찬가지로의 당착에 빠질 공산이 크다. 개념적 경계를 나누되 개념 영역을 가로지르는 ‘영역횡단 사상(cross-domain mapping)’⁵⁾으로써 이행의 여지를 조망하는 시야를 여는 것이, 중심을 상정하고 중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대적 방편으

2014, p. 13).

5) Lawrence M. Zbikowski, ‘The Cognitive Tango’, Mark Turner (ed.), *The Artful Mind*, Oxford UP., 2006, p. 128 참조.

로 조작된 심상 개념에 상응하는 문학의 지역(성)이나 대중(성) 등에 관한 논의선상에서 단서를 이루는 관건이다.

3. 일상어 | 문학어_ 대중 문학과 문학의 경계

언어의 양상에 관한 담론적 실천들을 돌이켜 보자.

가령 일상어를 일상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일상어는 어떻게 일상적인가?⁶⁾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의 변별을 논하려면 우선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의 양상을 여일하게 정돈할 수 있는 형태나 자질의 기준으로써 일상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에 성공한다손치더라도 언어의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하는 수순이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비일상적 언어 국면의 정수로 꼽히는 문학 언어 고유의 본질을 밝히는 일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문학 언어의 비일상성은 어떻게 비일상적이며, 문학에 적용된 언어가 비일상적에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문학 언어의 작용 양상과 작동 방식은 어떠한지, 그 작용으로써 달성되는 효과나 효력은 어떠한지 물을 수밖에 없다.

위의 결과치들이 일정한 범위의 오차 내에서 여일하게 제시되어야 언어의 일상성과 비일상성을 양분하여 대립시키는 쌍의 성립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언어의 본질에 상응하는 실체적 개념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언어의 실체적 자질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일상성에 관한 대립적 양항 자체가 성

6)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Harvard UP., 1980, p. 97.

립할 수 없을 것이며, 최소한 저러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입장을 취할 경우 일상성에 관한 논의 맥락을 따를 이유가 무색해진다. 대신 언어에 관한 구성적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진전시킬 여지가 열린다.

이러한 논리적 수순은 문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문학의 실체를 입증할 수 없는 한, 문학의 언어가 일상성과 변별되는 자질을 안고 있다는 식의 제안은 무색해진다. 문학의 수행적 국면들에 관한 개념 도식을 선택하여 문학의 자질과 기능 등을 이해할 개념 계열을 구성할 경우, 언어 요소들이 문학 텍스트에서 어떤 양상과 국면으로 문학적 효과를 내게 되는지가 논의의 관건으로 떠오른다. 언어도 구성적 개념이며 문학 또한 구성적 개념인 만큼, 이해에 소용되는 개념의 구성적 조합과 함수에 대한 이해의 지평에 서는 편이 온당하다.

따라서 '일상어와 문학어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묻는 편보다 '문학의 매체로 쓰일 때 언어가 특수한 의미나 효과를 내는지' 혹 그렇다면 '어떤 공정으로써 그러한 의미·효과를 내는지' 등을 묻는 편으로 물음의 지점을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언어나 문학의 실체에 관한 개념 계열이 아닌 그들의 구성과 작용에 관한 개념 계열을 분석의 서고(라이브러리; library)에 이관하고 둘의 함수로 파생될 개념 계열의 다기(多岐)한 재구성 국면에서 논의의 구심들을 찾을 여지를 두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 범주로 수용 가능한 언어 수행의 양태와 그 자질을 분석하고 평가할 준거가 될 만한 틀거리는 고정불변의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기보다는, '문학'이라는 관습적 약호(code)에 수렴될 만한 텍스트 군의 해석 공정에서 조건·변수에 대응하여 적용될 대체적 규약에 더 상응한다.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⁷⁾는 그 구성 양상에 대응하여 문학적 의사소

7)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Harvard UP., 1980, p. 14.

통의 지향과 준거 등이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유연한 구성체이다.

공동체의 규약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지어지고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듯이 문학에 관여된 해석 공동체의 규약 또한 해석의 준거나 문학에 관한 입장이나 관점 등에 대응하여 구성되고 개편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공동체라도 구성원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늘 가로놓여 있으며 쟁점에 따라 해석 공동체의 분열과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석 공동체 사이의 싸움(battle)이 벌어지는 동안 구성원들 간에는 편을 달리하여 이행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다.⁸⁾ 세를 키워 다른 편들을 압도하며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거대 집단의 출현도 예견되며 그러한 사례를 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거대 공동체의 해석 규약만이 절대 옳은 것이라 할 수는 없으며 '문학'에 관한 관습적 약호의 효력이 지난하게 미치는 한 해석 공동체들의 규약이 천차만별로 서로 공통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난망하다. 지역 문학이나 대중 문학 등은 이러한 해석 공동체적 약호가운데 하나의 경우로 전제하는 편이 타당하며, 공동의 약호를 공유하는 영역이라도 실제 해석적 수행의 장에서 개념 계열의 좌표를 점하는 여러 국면이 여일할 것이라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각각을 중심 문학이나 정통 문학에 상대되는 고정된 장르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어느 경우에도 대응되는 상수이다.

언어를 문학 범주 수행의 매재(媒材)로 쓸 때 다른 범주의 언어 수행 과정에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수준의 눈금자(스케일; scale)로 측정할 것인지 등에 따라, 가령 문체(style) 층위나 담론 층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적 개념의 계열이 달리 구성된다. 문학어와

8)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Harvard UP., 1980, pp. 14~16 참조.

일상어의 구분을 전제로 문학의 언어 층위를 분석하는 방법은 문학과 언어에 대한 실제적 개념을 바탕으로 체계를 지으려는 입장에서 파생된 하나의 방편⁹⁾이지 유일하고 전능한 방법으로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과 언어의 실체를 찾을 수 없는 터라면 언어적 수행 국면에서 의사소통의 공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터, 문학 작업의 공정에 채용되고 활용되는 언어 요소의 색다른 양태나 양상이 드러난다면 이를 통해 언어의 문학담론적 위상을 잠정적으로 산술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명희의 소설 『혼불』¹⁰⁾의 한 대목을 보자.

그네는 이제 아주 안 보이게 된 액막이 연이 어째서인지 자신의 몸만 같아서, 마치 저수지에 몸을 던진 인월 아침처럼, 밤하늘의 복판 아찔한 수심 속으로 깊이 빠져 잠겨들고 있는 것이 역력히 느껴졌다.

명주실.

이미 그네를 지상으로 잡아당길 명주실은 연 자세에서 다 풀리어 무엇에도 제 가닥을 걸어 볼 길 없이, 머리카락 한 올처럼 시르르 허공에 떠오르며 이윽고 흔적을 감추어 버렸다.

무슨 액을 막으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달 뜬 밤, 연을 띄우셨을까.

강실이는 한숨을 삼킨다.

한숨도 서걱서걱 열어 있다.

시리다. (6-85. 인용자 밑줄)

소설은 ‘산문’이다. 위 인용문은 여실히 산문이다. 여기 쓰인 어휘나 문장 단위의 언어 요소 가운데 일반적인 용례와 다른 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9) 오랫동안 독점적 권한을 누린 만큼, 이러한 방법이 문학의 언어 요소를 분석하는 데서 자명한 것으로 전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10)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6. 이후 논의에서 이 소설을 예시로 삼아 해석의 일단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인용문 끝에 ‘권-쪽’의 숫자만 병기한다.

밑줄 친 부분 등의 표현이 모종의 수사적 효과를 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표층의 언어 요소가 특수한 형태로 채용된 것은 아니다. 통상 수사적 효과라고 하는 것도 그 효과가 표현 층위에서 빚어지는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할 때 유효한 방법적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잘 꾸며서 쓴 언어 표현의 표층에 자명하게 주어지는 수사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이해와 수용 과정을 거쳐 의사소통이 일단락되는 공정에서 산출되는 담론 효과이다.

위 인용 대목에서 ‘강실’과 ‘액막이 연’의 사상(寫像: mapping)은 ‘수심’의 의미를 표층에서 확인하는 데 머물 수 없게 한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심연에 상응한다는 ‘수심’은 ‘물 깊이’[水深]에서 ‘근심’[愁心]으로 의미가 전이될 문맥을 따른다. 인물의 심회에 대응된 ‘수심’의 깊이는 이를 측량할 자의 스케일이 독자의 해석과 수용에 이관된다.

이렇게 지어진 텍스트와 독자의 교감에 관한 담론상 모의(discursive simulation)는 언어 표층 요소의 조합만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없는 정황을 짓는다. 어휘 하나가 문장 층위로 부상한 ‘명주실’이 주목을 끄는데, ‘머리카락 한 올’과 사상됨으로써 ‘액막이 연’과 ‘강실’의 사상을 더욱 밀도 있게 하여 문맥상 주요 전기를 이룬다. 그래서 이어지는 대목의 ‘그네’는 이미 공통의 개념 계열에 사상된 액막이 연과 강실이 들을 아울러 지시하는 중의적 표지로 수용될 수 있다. 허공에 날려져 액을 막아야 하는 연이 마주하는 찬 기운은 비련의 주인공으로서 감내할 냉엄한 현실에 직면한 강실이 내쉬는 숨의 한기와 은유적 사상 관계에 놓인다.

강실이 품은 시린 회한이 위와 같은 은유적 사상을 통해 형언된 텍스트를 대할 때, 언어의 지시적 표층에 드러난 의미만 수용하는 데 그칠 수 없다. 행간에 배인 담론 효과가 해석 공정에 끼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할 텐데, ‘시리다’로 수렴되는 감각에서 파생되는 정서의 교류로 구성되는 감성

(affect)을 인지적 교점에 이을 여지가 형성된다.¹¹⁾ 이즈음 산문 일반의 의사소통에서와 다른 이해의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그 회로가 텍스트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구동되는 것은 아닌 만큼 담론상 맥락에 따른 조건 변수처럼 대입되어 구동되는 양상을 살피는 것이 온당하다. 때로 저러한 감각의 효과나 정서적 영향이 수용되어 소통되지 않을 경우, 위 인용 대목의 담론적 효과는 산문 일반의 의미망 내에서 잘 조탁한 표현 효과 외에 더는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일견 불필요한 수사로써 의미의 명징한 면을 흐리는 무의미한 표현의 연속체에 불과한 것으로 판정해도 무방하다.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라도 일상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나눌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징표를 앞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소설의 언어가 시의 언어와 달리 일상어에 상응하는 산문이라는 식의 생각의 바탕이 흐트러지는 셈이다. 산문인 소설이, 운문이며 상징·비유의 언어인 시와 달리 태생적으로 대중적 장르종이라는 식의 생각 또한 무색해지는 셈이기도 하다. 『혼불』은 대중 소설과 다른 위의를 띠는가 아니면 뭐라 해도 소설이니 대중성을 안고 있는가, 무의미한 질문이다.

4. 아날로그 | 디지털_ 언어적 분절과 문학적 디지털 전략

언어는 세계에 대한 분절적 기호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편이다. 언어 기호는 이어진 자연적 대상이나 수행적 현상을 개념 모듈로 나누어 인지

11) Comer, C., & Taggart, A., *Brain, Mind, and the Narrative Imagination*, Bloomsbury Academic(Kindle edition), 2021, p. 167 참조.

도식의 계열을 구성하여 세계를 수용하는 방법적 도구이다. 자연의 산과 들, 강과 바다와 같은 대상은 그 경계를 나눌 수 없지만 각각의 개념에 대응되는 언어 표지를 통해 수용 가능한 인지 더미로 변환되고서야 이해 가능한 데이터로 환산될 수 있다.¹²⁾

언어적 분절이 없이는, 무한에 가까운 대상과 현상을 실시간 지각하거나 인식하는 인지 수행은 불가능하다.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직렬 처리 방식으로는 실시간으로 부과되는 정보량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인지 수행은 다량의 정보를 일정한 개념의 계열에 투사하여 정보를 분산하여 처리하는 병렬 처리 공정으로 진행되어 정보의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¹³⁾ 이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선제적 작업이 실시간 데이터의 분절(segmentation)이다. 분절된 데이터가 개념 계열(conceptual paradigme)에 투사되고 각기 대응된 의미값이 산출됨으로써 인지의 단락이 지어진다.

끊임없이 이어진 세계를 분절하여 인지 가능한 정보로 환산하는 일은 이를테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일에 상응한다. 언어적 분절은 디지털 변환의 대표적 방식이다. 언어로 세계를 수용하고 의사소통에 나서는 수행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자연(nature)을 개척(cultivate)하여 생활에 유리한 도구와 방식으로 변환하여 삶의 진전을 꾀하는 인간의 문화(culture)적 수행이 곧 아날로그 세계에 대한 디지털 조작을 원리로 한 것이다. 문화적 수행의

12) 언어 학습은 정보 처리 공정의 일단을 완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어는 정보 처리를 통한 인지 수행의 주요 과정에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병렬 처리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프로세싱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José Luis Bermúdez, *Cognitive Science*, Cambridge UP.(Kindle edition), 2014, p. 234 참조.

13) Paul B. Armstrong, *How Literature Plays with the Brain*, Johns Hopkins UP., 2013, pp. 79~80 참조.

단말 수단이면서 문화적 적층과 인지적 진화의 동력인 언어가 디지털 변환 작업의 수월한 수단이 되며 디지털 매체 분화의 단서가 되는 점은 이체가 아니다.

문학은 자동화된 일상을 낯설게 조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수행의 국면으로, 이를테면 이차적 혹은 이중적 디지털 수행이다. 분절적 조작을 통해 인지된 세계에 거리를 두어 문학적 ‘낯설게하기’ 공정에 이관하여 세계에 대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이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변환인 것이다. 다음을 보자.

이윽고 밟는 사람 발에서 번진 온기가 빨래에 골고루 퍼질 만하면 이제
다듬이질을 시작하였다. 빨랫보를 벗겨 내고 깨끗한 다듬이 보자기에 옷감을
바꿔 짜서, 차고 매끄럽고 단단한 다듬잇돌 위에 올려놓은 뒤 박달나무
방망이 두 개로,
딱 딱 딱 딱, 또드락 푹 딱, 또드락 또드락, 또드락 딱 딱
두드리는 음향은, 설을 앞둔 매안 마을 선달의 등잔불 아래 이 집 저 집
처마마다 밤 깊은 줄 모르고 울리었다. (7-14)

‘다듬이질’에 관한 이야기 시퀀스이다. 오늘날에야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만 저 이야기의 배경 시기에는 일상의 한 장면이다. 일상을 제재로 하여 별
스럽게 꾸미지 않은 언어로써 기술한 문장이 이어진 텍스트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다듬이질 소리를 옮겨 적은 구절이다. 그 소리를 표현한 바를 별
도의 행에 배열하여 시선을 모으는 담론적 효과가 더해졌음 직하다.

이때 다듬이 방망이로 다듬잇돌을 두드려 나는 소리는 음향에 불과하여
음성 표지로 직접 환산할 수 없는 데이터이다. 그 소리는 인위적 조작에 의
해 발생하지만 하나의 시퀀스 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현상
에 드러난 소리 단편을 음성상징의 개념 계열에 사상하여 특정 표지에 대

응시시켜 표현하고 이를 통사 층위에 투사한 결과가 ‘딱’이라는 의성어이다. 의성어는 의태어에 비해 유연적 기호에 가깝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배인 정도이지 언어 기호의 자의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로까지 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음향을 근사한 음성에 대응시키는 것은 분절이 선행되는 개념적 사상과 다를 바 없다. 일견 그 자체가 은유적 개념의 사상을 거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감각 소여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정에서 얻은 산출치라 할 수 있다.

다듬잇돌과 방망이가 부딪혀 나는 소리를 음성으로 변환한 기본 표지를 그만으로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변이형으로써 변주하듯 음향의 리듬감을 음성 표지의 연속체로 구현한 바가 위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다듬이질하는 자리에 입장하여 얻은 경험의 소여를 개념 도식의 계열에 편성하고 소리의 다채로운 감각 데이터를 가능한 변이형으로 가공하여 하위 계열에 배치하고 산출의 바탕으로 활용한 것이다. 다듬이질에 관여된 정보가 그 소리 시퀀스를 구심으로 개념 계열을 가로지르며 재편될 여지에 부처진다. 정보 처리 공정상 디지털 분절이 이루어지는 계기라 해도 좋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더 살펴보자.

이렇게 두드린 옷감을 다시 흥두께에 편편하게 말아서 흥두께틀에 얹고,
틀 아래 다듬잇돌을 받쳐 놓아 방망이질을 하노라면, 다듬잇돌 위에서 흥
두께는 방망이를 맞으며 저절로 조금씩 돌아가게 마련인데.

두들겨 맞은 방망이 자리마다 옷감에는 구름 무늬, 물결 무늬, 햇살 무
늬, 이내 무늬, 아른아른 아련한 얼이 어리는 것이다.

맞으면서 제 살결에 피어나는 무늬.

그 무늬를 사람들은 얼이라 하였다. (7-14)

이 시퀀스에서 ‘얼’에 관한 개념 계열이 구성되는 공정이 진전된다. 다

듬이질로 생긴 무늬를 가리키는 ‘얼’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변환하는 개념 도식의 횡단적 사상을 알아채는 것이 관건이다. 방망이로 맞아서 생긴 얼이 아련한 미감을 자아내는 무늬와 등식 관계에 놓는 사상은 극적이다. 다듬이질로 옷감에 생긴 자국을 맞아서 생긴 아픈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나 자연 현상의 아름다운 감각에 상응하는 무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절적 디지털 조작으로써 산출된 담론이다. 일견 모순에 가까운 두 감각 정보를 한데 엮은 표지인 ‘얼’에 관한 개념이 생성되기까지 디지털 조작이 중층을 이룬다.

은유적 개념 사상이 문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적 수행의 주요 전술로 꼽는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 은유의 공정이 디지털 변환된 데이터의 이차 디지털 공정이다. 문학적 표현이라서 별개의 수사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정으로써 상투형과 다른 의미와 담론적 효력을 생성하는 문학적 수행에 부쳐진 텍스트가 제시되는 것이다. 디지털 데이터를 해석하는 공정에서 디지털 방식의 이차적 공정이 부가되는 식으로 문학 텍스트의 해석은 디지털 방식을 구심으로 진전된다. 한 대목 더 보자.

막바지로 공사가 치달아 마무리가 되려는데, 꼭 기다렸다는 듯이, 나라가 망했다, 하지 않는가. 나는 믿을 수가 없었네. 하늘과 땅이 합벽을 하고 맷돌을 갈아, 천지가 캄캄한 일이었지.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남모르게 벅찬 희망이 샘솟았다는 것이야.

맷돌질 해 보면, 왜, 우아렛짝이 맞물려 돌면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만, 껍질도 벗겨지지 않은 채 통째로 빠져 나오는 놈이 있지 않던가? 신기하지. 꼭 그 통밀이나 통팥, 녹두같이 또글또글 살아서 튀어나온 희망, 그것이 저수지였어. (2-33)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부터 그러하지만 무너질 외연이 없으며 그도 중력 덕에 무너질 리 만무한데 하늘이 무너진 상황을 상징하는 것은 자의적 기호 수행의 결과다. 가능성 자체가 없는 일이 실로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한 절망적 상황도 없으리라는 심산을 하고 보면 그럴싸한 생각이기도 하다. 그 상황에서 절망을 벗어날 통로가 있다는 얘기는 희망의 전언으로 수용되기 적당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별스럽지 않게 통용되는 이 말이 은유적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는 여러 겹의 분절적 디지털 조작이 간여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라는 전언은 삶의 예지를 더하는 담론의 대표적 개념 도식에 관여된다. 위 인용 대목의 전언이 이에 상응한다. ‘하늘과 땅이 합벽’하는 상황을 앞세운 것이 변이형이라는 단서다. 뭇돌질에 관여된 개념 계열이 인지의 새로운 조건 변수로 대입된 터이지만, 절망 속 희망에 관한 전언의 요지는 유지되는 것이 관건이다. 두 담론의 공통 요소인 ‘구멍’이 전언의 공분모를 시사한다.

그런데 ‘구멍’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늘이 무너진 상황의 구멍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로에 해당하지만, 뭇돌질에서 구멍은 곡물이 갈리러 들어가는 구멍이니 이를테면 절망으로 향하는 경로에 해당한다. 같은 표지이지만 모순된 개념에 대응되는 기호인 것이다. 그만큼 전언의 의미치도 그 자장이 사뭇 다를 수 있다. 그 값을 측량할 정격의 눈금자를 일률적으로 댈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산출되는 분기마다 분절적 디지털 조작이 작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문화적 수행이 디지털 변환을 통해, 자연과 일상의 상투형을 지배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해체하는 거점에 있다는 점이 이러한 이유로 명징한 방증을 얻는다.¹⁴⁾ 다만 그 공정에서 쓰이는 개념 도식이 문화적 수행의 장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인지적 수행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데 주목할 만하다.

5. 장소 | 공간_ 지역적 경계에서 횡단적 탈경계로

지역어, 지역 문학, 혹은 지역 어문학 등, ‘지역’을 표지로 한 술어나 개념 도식의 근저에는, 중심을 절대 가치로 전제하는 입장에서 파생된 표준에 상응하는 향이 자명한 실체로 상정되어 있다. 그래서 표준향의 술어나 개념 도식은 별도의 표지가 부가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양수 표지가 생략되어 있어 중립적인 가치를 안은 것처럼 보이는 표준은 우월한 영역을 포괄하는 긍정적 가치가 부여된 터이다.

이에 비해 태생적으로 음숫값이 부여된 ‘지역’ 표지는 주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안고 있다. 음수 표지의 개념향이 값을 더할수록 부정적인 자질이 더욱 공고해지는 모순적 상황을 염려해야 하는 이유가 예 있다. 산술의 결과치가 적층되어 표준과 지역의 관계가 역전된다손치더라도 중심과 주변의 역학이 달라질 뿐이지 둘 사이에 넘기 힘든 벽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지역에 관한 음수향의 개념적 산술이 경계의 해체나 둘 사이를 가로지를 여지를 조성하는 데 정향의 구심을 두는 것이다. 지역 표지를 새로운 중심의 양숫값에 두는 우를 경계해야 옳다.

‘지역’은 ‘장소’에 관여된다. 실제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경험의 범위나 수행상 필요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획하여 실체 개념인 양 적

14) 문학의 디지털 자질에 관한 논항은 외연이 크고 개념의 층위와 자장이 더하다. 이를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논점을 불필요하게 키울 우려가 있으므로 방법적 개념의 단서 수준에서 같음하는 편이 온당한 듯하다.

용한 것이 ‘지리적 장소’이다. 삶의 안정된 바탕을 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심성에 부응하는 개념 계열이 이로써 조성된다. 한데 정착하여 경작할 땅과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여 시작된 농경 생활이 인류 문명의 발상과 혁명적 진전을 이루는 전기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주를 통해 생활의 조건을 일정한 방향에서 예측 가능하게 한 것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일상 생활이 안정된 바탕에서 차원을 달리한 삶의 여러 방면에 걸친 기획이 가능해진다. 문학적 수행이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기도 하다.

장소 개념에 기반한 ‘인문지리학’을 창안한 이-푸 투안(Yi-Fu Tuan)이 ‘장소애(topophilia)’를 인간이 품은 열망의 주요 국면으로 제안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절한 개념적 확장을 꾀한 것이다. 생활 활동을 보호받을 만한 장소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점은 여러 방면에서 유효한 전제로 적용된다. 인류사 전반에서 장소에 관여된 보편적 열망이 작용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빛나는 성취의 역사에 호도된 이면이나 상대적 가치의 이중적 면면을 들추어 볼 여지는 남는다.

‘한정된 장소’를 두고서 ‘무한한 장소애’가 발휘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상수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공유와 공생의 가능성이 변수로 대입될 수 있지만 장소에 관한 개념 계열에는 이에 관여된 개념항이 편재하지 않는다. 장소에 관한 한, 인간 삶의 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에 관여된 이중성을 소거할 수 없다. 가령, 인류 역사 전편의 전경(前景)을 ‘전쟁의 역사’가 장식한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이 제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의 거개가 장소를 확장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표면상 장소를 넓히는 전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장소에 관한 이념으로 추상화된 개념 도식에 대응될 사태이다. ‘전쟁은 땅 따 먹기’라는 개념 은유로 요약해도 좋을 것이다.

개인 간의 분쟁만 하더라도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하는 경우로 수렴된다. ‘땅’에 집착하는 장소애의 편집증적 증후는 주거 장소의 이념화 국면이 공고해지는 부조리를 초래한다. ‘부동산’은 그 부조리가 생활의 장에 증대한 영향을 끼치는 장소의 음습값을 산출한 트리거이다. 안정된 생활의 바탕으로서 존재를 보호하는 자질이 가치로 부여되었던 ‘장소’의 양습값이 소거된 채, 자본의 가치로 환원됨으로써 되려 안정된 주거의 가치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그 가치가 상승하는 부당한 상황이 용인된 까닭이다. 장소 상실의 상황, 혹은 장소가 소거된 무장소의 상황(placelessness)은, 삶의 전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수항이 돌연 표준항이자 가치의 중심으로 뒤집힌 상황이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는, 당찮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한 대응 개념이다.

인문지리학의 거점을 이루는 ‘장소’는 가치의 중심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기존 지리학의 거점인 ‘공간’의 중심적 지위를 대체하는 자리에 장소 개념을 세운 것이다. 장소에 대해 공간은 추상적인 것으로 경험과 무관한 텅 빈 개념으로 상대화된다. 삶의 경험이나 인간 가치(humanities)와 무관한 공간 연구의 한계를 들춘 것은 적절해 보이며, 장소를 중심으로 지리를 인문의 범주로 편성한 방법적 지향은 지리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위상을 새롭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변별을 위해 공간을 장소와 대척점에 둔 채 피할 수 없는 이분법적 한계에 내몬 것은 분명한 실책이다.

공간은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경험 범위에서 포착되는 대상이나 현상의 구체적 면면을 실증하거나 실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최적의 방법을 제안하기 수월치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를 통해 통찰하고 진전된 의미망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적 개념의 여지를 숫제 낮춰 보는 시각은 당찮다. 공간만을 절대 가치의 기준으로 상정하고 경험에 관여된 장소를 편휘하던 시각과 상반된 듯하지만, 한편을 중심으로 상정하고 다른 편을 논의

선상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입장에 도사린 편향된 담론적 실천 면에서는 그 패턴이 다를 바 없다.

공간은 장소와 대립되는 개념일 수 없으며 둘 사이의 개념적 층위가 위계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의 계보와 지층에 비추어 볼 때, 인문지리학에서 두루 쓰는 장소 개념은 공간의 자질과 기능 등에 대해 논할 때 채용되는 공간 자질의 한 국면 정도로 보는 편이 온당하다.¹⁵⁾ 장소가 실존의 안정을 보호하는 자질을 안은 반면 일정한 영역의 한계에 실존을 가두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공간이 경계 불명의 무한한 영역 개념으로 실존적 위기를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그만큼 존재가 자기 영역의 지평을 확장하여 가능한 세계를 드넓게 기획할 수 있는 여지를 더하는(einräumen) 자질을 안고 있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공간은 장소의 부정적 자질을 소거하는 개념적 상위 계열을 이룬다.

공간은 장소에 국한된 한정적 영역에 관한 개념 계열을 해체하는 데서 성립한다고 해도 나쁠 것은 없다. 개념의 범주나 층위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관건이 아니며 각 범주와 층위를 가로질 수 있는 여지를 두어 문턱 수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심의 이념항이나 고정된 실체적 개념을 세우지 않는 방법적 태도가 여일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에 관여된 개념 술어를 제안할 때 장소 말고 공간에 관여된 개념 계열을 구성하는 것이 관건으로 부상하는 식이다.

‘지역’ 표지를 더하는 개념 계열이 부동의 장소 개념에서 파생된 것은 사실이다. 이 표지의 음수 요소를 소거하여 표준의 위상에 오를 요소들을 덧입히는 과정이 지역에 관한 탐색의 거개를 이루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15)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공간성(räumlichkeit des Daseins)’ 논의를 바탕으로, 인문지리학의 ‘장소|공간’ 논의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 서강대출판부, 2011, 22~31쪽 참조.

그리 오른 '표준 지역'의 위상은 지역의 한계를 용인하는 것으로 다른 비표준 지역(비표준 중앙을 포함하여)과의 격차를 균힐 때라야 유지된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요소들을 부각하여 서로 넘나들 수 없는 벽을 세우는데 비용(cost)의 상당량이 할애되게 마련이다.

지역에 관한 요소는 경계의 구분에 적용되므로 공간에 관한 개념 계열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역이 장소의 폐쇄적 자질에 관한 개념만이 부가될 경우라면 공간의 개방적 자질에 접속될 만한 개념적 교점을 이룰 수 없다. 그렇지만 지역의 경계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수준이며 실로 영역 간의 횡단에 관여된 수행의 개념적 단서와 닿는다면, 상이한 개념 영역을 엮어 의미와 가치의 망을 새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지역 개념은 장소의 파생 개념이며 영역(domain)의 구획에 수렴되지만, 영역 간을 가로지르는 인간적 수행의 여지를 안는다는 전제에 대응될 수 있다. 이 전제는 지역에 관여된 개념 계열이 창발적 인지 수행을 최적화하는 공간횡단 사상(cross-space mapping)¹⁶⁾의 구심을 이루게 할 단서다.

공간에 관한 개념 계열이 활성화될 때 '지역'은 음수 자질을 안은 부가표지의 제한적 조건을 떨칠 수 있다. 이로써 영역들 사이를 분방하게 가로지르며 교류하여 혼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이때야 비로소 표준과 중심의 관여적 자질로써 우월한 지위를 우선 규정하고서, 이에서 일탈한 비표준과 주변의 잉여적 자질로써 열등한 지위를 규정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중심의 이념'을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공간은 장소의 중심 이념을 해체하는 개념적 기제로 작용한다. 이 기제에 투입될 때에 지역에 관여된 담론적 실천들은 '지역'이라는 음수 표지를 떼고 태생적으로 부가된 부정적 가치를 중화하여 '개념적 균질화'를 꾀할 수 있다. 이 기제의 작동

16) Gilles Fauconnier and Mark Turner, *The Way We Think*, Basic Books, 2002, p. 41.

공정에는 표준의 영역 또한 한 지역의 영역으로서 산입되므로 중앙이나 표준, 정통이나 고급·고등 등과 같이 중심의 이념향을 지탱하던 선연한 개념이 무색해지는 중화가 이루어진다.

지역 개념의 경계를 소거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그 개념 술어들이 오랜 동안 자명한 인지 도식으로 쓰인 까닭에 그리 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무모하다. 관건은 지역에 관한 개념 술어를 활용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떠한 맥락과 조건에 따라 채용할지 '여하'에 관한 것이다. 영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행은 물론 경계의 이행 가능성도 주목할 여지가 있다. 경계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기성의 경계가 소거되거나 달리 구성되어 영역의 역학 관계가 재편될 여지는 편재한다.

표층에서 명징하게 확인되는 교류의 징표를 자명한 실체로 오인하는 우는 경계할 일이다. 실천적 교류의 저류에서 개념 계열의 교점이 이루는 의미와 가치의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심층의 탐색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기존에 중심의 중앙과 주변의 지역으로 변별되던 두 층위 또한 해체되어 표준을 이루는 중앙 권역도 하나의 지역에 관여된 영역으로서 함수의 역에 대입된다. 표준이든 지역이든, 정통·고등이든 통속·대중이든, 이들에 대응되는 영역 간의 횡단적 교류 수행의 바탕을 각 지표에 관여된 개념 계열의 사상적 함수 관계를 산술한 데서 얻게 된다.

지역에 관여된 표제는 상대적 공간 개념 계열에 투사되어야 마땅하다. 하나의 지역이 중심을 이루는 법은 없다. 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정하고서 관여된 지위와 권한, 가치나 의미 등을 전역에 걸쳐 절대치를 부여한 이념향을 짓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그 가능성의 전제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데올로기로써 삶의 전역이 해체되는 정황을 수긍할 이유는 없다. 삶의 장을 진전시킬 동력은 되려 중심의 이념향을 해체하여 여러 지역이 각각의 구심을 이룬다는 식으로 이해의 정향을 옮겨야 온당하다. 표준의 자리

를 대체할 지역의 실체를 찾으려 하는 편보다, 지역에 관한 현상을 온당히 해석할 개념 도식의 계열을 구성하려 하는 편이, 공간에 관한 방법적 개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지역 문학도 중앙 문학도, 대중 문학도 정통 문학도 그 어디에서 실체를 찾을 길 없다.

가령 지역 출신의 작가가 지역을 배경으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언어 생활을 비롯한 삶의 대개를 제재로 삼은 『혼불』은 지역어 문학 혹은 지역 문학의 사례인가? 이 소설에 쓰인 언어는 지역어인가? 『혼불』을 둘러싼 활동의 표본이 어느 영역에 국한되는가? 『혼불』은 소설이니 대중 문학의 장르종인가, 혹은 통속의 대중 소설인가 고등의 정통 소설인가? 다음을 보자.

마당에서 콩심이 달랑거리며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누렁이와 함께 뛰는지 무어라고 딱딱거린다. …(중략)…

고것은 안서방네에게 가끔씩 쥐어박히면서도 그 옆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이런저런 자잘구레한 이야기의 말 동무도 되어 주고 낯낯하게 잔심부름도 곧잘 하였다.

“아이고, 이년아. 너는 무신 노무 목청이 그렇게 때까치맹이로 딱딱딱딱. 내 귀가 마대. 조신하게 가만 가만 좀 못허겄냐?”

안서방네는 콩심의 주둥이를 향하여 주먹을 질러 보인다.

콩심이는 헛바닥을 날름하며 눈을 질끈 감는다. 알았다는 시늉이다.

“너 이년, 이 덕으 청암마님이 어뜬 양반인지 알기나 허냐? 매급시 천방지축 팔랑거리고 땡기다가, 다리 몽생이 분질러질 중 알어라.”

“아앗따아, 워찌 고흥코름 무신 양반이디요?”

“이년. 이 주둥팽이, 어른이 무신 말을 허는디 그렇게 비암 셋바닥 맹이로 날름 말을 받아먹냐? 그렇다면 그렇갑다, 허고 속으로만 알아들을 일이 제.” (1-274~275)

『혼불』은 전라 남원 지역에 터를 잡은 때안 이씨 가문을 둘러싼 이야기이다. 위 인용 대목은 양반가의 하인인 ‘안서방네’와 ‘콩심이’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다. 둘의 대화에서 서남 방언에 해당할 방언의 쓰임새가 두드러지는데, 음성상징어를 직접 발화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구사하여 방언의 어감에 입장감을 더한 담론이 기술되어 있다. 이런 양상은 어휘 층위는 물론 종결 어미나 선어말 어미 등 형태소 층위에서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그 어감이 증폭되는 담론적 효과를 낸다. 가령 ‘-의’를 ‘-으’라고 표기하여 서남 방언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음성을 음운 표지에 반영하는 식으로 담론 현장의 미세한 실상을 구현하고 있다. 게다가 대화에서 직접 발화된 경우만 아니라 대화를 옮겨 이야기하는 서술자 층위의 발화에 인물의 목소리가 개입한 듯한 서술상황이 구성되고 있어 이채롭다. ‘달랑거리며 뛰어가는, 땡땡거린다, (어린 아이를 가리켜) 고것은, 쥐어박히면서도, 주둥이, 주먹을 질러 보인다, 햇바닥을 날름하며’ 등과 같은 비속어나 방언으로도 분류되는 ‘낫낫하게’ 처럼 인물 층위에서 쓰임직한 언어 요소가 서술 층위에 반영된 식이다. 비속한 표현의 쓰임이 인물 층위는 물론 서술 대리자 층위에까지 반영되어 있으니 그 표층의 징표로 미루어 이를 통속적 세속적이라고 규정해야 할 것인가?

양반가 인물들이 벌이는 대화 부분을 보면 그 양상이 극적 반전처럼 뒤집힌다. 위 인용 부분에 바로 앞선 부분인 다음을 보자.

효원은 숙인 이마를 더욱 깊이 수그렸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그녀 자신이 주도하여 하는 일이라면, 두부를 자르듯이 네모 반듯하게 경영하여 어여쁘게 할머니 앞에 놓아드릴 수도 있겠지만, 혼자 앉아 아무리 각골명심 새겨들어본들 무슨 하릴 있으리오.

(할머니의 심경을 제 어찌 모르겠는가……. 하오나, 다만 헤아려 드리오
 뿐 더 어찌지도 못하고, 제 몸으로 남의 인생 사는 것이 무슨 희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인 운명이, 제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살라고 주어지는 것을 살아야 하는다. 여인이라 그러한가, 남들도 나 같은가. 만들고 고치고 소망하는 것이 모두 다 홀로 달을 바라봄과 같으니 손발이 있으면 무엇하고, 뜻이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효원의 수그린 이마와 각이 진 어깨에 그 단단한 마음이 글자처럼 드러나 보였는지 청암부인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손부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다.

“(중략)… 손리가 있는 것을. 허나, 나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시절은 흥흥하여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어린 너한테 과중한 짐을 부려 버리고자 이렇게 자꾸 다짐을 하는 것이니라.”

청암부인은 쥐고 있는 효원의 손을 조용히 조용히 어루만지고만 있었다. 부인 손의 다순 온기가 효원에게로 번지며 스며드는 것을 효원은 느낀다. 그 온기 속에는 추상(秋霜)의 찬서리 기운도, 뇌정(雷霆)의 울음 소리도 아닌 그저 한 아낙의 간절한 심정만이 어려 있는 것 같았다. (1-274~275)

이 ‘청암부인-효원 대화’ 시퀀스는 ‘안서방네-콩심이 대화’ 시퀀스와 끊임 없이 문맥이 이어져 있는데 두 서술의 양태가 사뭇 다르다. 교양과 지식의 수준이 상당한 이가 구사할 법한 어휘가 쓰이고, 대화는 물론 독백에서도 존대법이나 종결법과 같은 통사 규범이 잘 지켜진 문장이 이어진다. 방언권을 벗어난 적 없는 이들의 발화에서 방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발화의 실상을 반영했다고 하기 어렵다. 서술자 층위의 발화에 배인 어투조차 이 시퀀스에서는 양반가 인물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에 뒤따른 시퀀스의 정황과 모순될 정도로 상이한 담론 양상인 것이다. 고상하고 고등한 담론의 표층에 드러난 징표로 미루어 곧 수준 높은 고급 문학의 양태라고 해야 할 것인가?

『혼불』은 삶의 대소사에 얽힌 담론의 실감을 구현하는 데서 나아가 실감의 요소와 차원들을 재구성하여 인물과 사건의 표상적 의미를 부여한

담론 패턴으로 변환하여 서사 공정에 환류함으로써 서사적 문체 (narrative style)의 동력을 발전한다. 삶의 여러 국면에서 경험의 폭과 깊이를 드러내는 담론들의 현장을 기술하여 구상을 제시하는가 하면, 문제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과 현상을 통찰하는 혜안을 서사 텍스트에 언어로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삶의 전역에 산포된 언어 수행의 결실을 포괄하여 서사 텍스트로 재구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낼 때 문화지 (ethnography)라 해도 좋을 문학의 위상이 선연해진다.

음수 표지가 부가된 지역에 관여된 개념 도식을 동원해서 『혼불』을 규정하는 것은 당찮다. 이는 비단 『혼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쉬이 ‘지역’을 표지로 한 개념 도식을 세우곤 하지만, 새 표지를 붙인다고 새롭고 유효한 개념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는다. 짐짓 지역 문학은 그 실체의 외연을 측량할 수 없다. ‘표준 | 지역’ 이분법이나 계층의 차이를 ‘고상한 | 비속한’ 언어라는 위계에 대입시켜 이원화하는 이념적 조작을 넘어서는 담론의 효력을 고양할 때, 지역이나 대중에 관여시킨 문학의 개념 계열을 온당하게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겨우 열린다.

6. 문학적 혼성 공간의 위상_지평

중심의 해체는 여러 구심의 활성화를 가져 온다. 지역에 관여된 개념이나 현상은 이러한 구심에 관여된다. 대중 문학에 관한 개념의 경우도 그 하위 항에 포섭된다. 각 구심에서 진행되는 일의 범위나 양상이 소용돌이치듯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구심적 수행이 공동의 영역에 모여면서 네트워크가 구성됨으로써 공공의 진전을 이룰 바탕의 여지가 커진다. 이러

한 구심의 네트워크는 경계를 가로지르며 공간을 횡단하여 창발적 구조를 이루는 단초가 된다.

이는 지역이라는 장소·공간 자질 선연한 개념 계열에 관해서만 아니라, 언어와 문학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언어와 문학을 형식과 내용, 혹은 본체와 매체 식의 이원적 관계에 대응시키는 한 중심과 주변의 격리된 위계를 설정하는 수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중 문학 혹은 문학의 대중성에 관한 담론적 실천은 문학의 중심에 관한 이념향에서 파생된 지역어문학 개념 도식의 문제적 거점 가운데 하나이다.

문학은 그 수행적 국면에서 의사를 소통하는 회로가 작동하는데 거개의 의사소통 공정에서 수단으로 두루 쓰이는 언어가 문학의 미디어로 수월하게 쓰이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오늘날 의사소통의 미디어로 언어만 쓰이는 것이 아니듯이 문학의 미디어를 언어에 국한할 이유는 없다. 문학의 자질과 기능, 의미와 가치 등이 언어를 경유하여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문학의 수행적 국면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그 미디어가 실체 층위에 고정되어 변경될 수 없다는 생각이 타당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언어가 미디어의 대중을 이룬 시간대가 거의 절대 수준으로 큰 만큼 언어로 유통되는 문학 텍스트가 거개를 이루는 것일 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문학에 관여된 어떤 것을 수행할 여지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의 매개체라는 미디어 롤(media role)을 염두에 둔다면 문학에만 특화된 미디어의 영역이 별개로 있다는 전제를 고집할 이유는 더욱 무색해진다. 미디어 롤이 최적화된 미디어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달을 가리키는 손과도 같은 것이다. 미디어가 전언을 가리거나 곁에 부각되는 것은 의사소통이 최적화되지 않은 반증이다. 문학의 미디어를 둘러싸고 불거진 담론적 실천들 가운데 미디어를 수단이 아닌 본질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의중에 장악된 경우가 적잖다. 대중 문학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활성화된 디지털

미디어의 단말 현상을 거점으로 집산되는 것이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학은 언어 수행의 한 국면이며 언어는 문학의 미디어로서 외연의 한 면이 드러난다. 문학적 수행으로써 언어는 다른 언어 수행의 국면에서와 다른 의사소통의 양상을 구현하여 진전의 계기를 얻는다. 물론 문학에만 특화된 언어의 영역이 별개로 구획되거나 언어만으로 이를 수 있는 문학 고유의 영역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문학’은 언어와 문학 둘 다를 고정된 실체 층위에 두고 단순 조합함으로써 도출된 음수 표지이며, ‘지역 문학’이나 ‘대중 문학’ 등과 같이 중심에 상대되는 대등한 항인 양 상정되는 담론적 표제들 역시 음수 표지으로써 낙인 찍힌 부정항의 개념 도식으로 규정된 허상이다. 이러한 표지들으로써 언어와 문학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횡단적 수행으로 구성될 혼성 공간(blending space)¹⁷⁾을 산출할 식을 세우기 난망하다. 손쉽게 표지를 교체한다고, 단단히 다져진 완고한 개념 도식의 구조를 허물 수 없다. 기성의 완강한 구도를 허무는 일은 무모하다. 파괴(destruction)의 공정이 아닌 해체(deconstruction)의 공정을 구동할 필요가 있다.

혼성 공간은 개념 영역의 경계를 해체하여 이행할 여지를 더한다. 언어와 문학 각각에 관여된 개념 계열 간에 이를 수 있는 횡단적 사상의 병렬 처리 공정에서 산출될 수 있는 개념 혼성은 인지적 창발 구조(emergent structure)의 기획과 창출을 재촉한다. 언어·문학의 혼성 공간은 문학적 수행의 기능에서 원심을 이루는 인지적 창의의 바탕이다. 이러한 바탕은 중심의 이념에 장악된 실체적 개념 도식의 완고한 구도를 해체하고 구성적 개념 도식의 계열들로 재편하는 거점에서 구축될 수 있다.

17) Gilles Fauconnier and Mark Turner, *The Way We Think*, Basic Books, 2002, p. 41.

참고문헌

- Armstrong, Paul B., *How Literature Plays with the Brai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 Baars, Bernard J. & Gage, Nicole M., 『인지, 뇌, 의식』, 강봉균 역, 교보문고, 2012.
- Bermúdez, José Luis, *Cognitive Science*, Cambridge UP.(Kindle edition), 2014.
- Boyer, Pascal, *Minds Make Societies: How Cognition Explains the World Humans Create*, Yale University Press(Kindle edition), 2018.
- Comer, C., & Taggart, A., *Brain, Mind, and the Narrative Imagination*, Bloomsbury Academic(Kindle edition), 2021.
- Dehaene, Stanislas, *Consciousness and the Brain*, Penguin Books(Kindle edition), 2014.
- Eckert, Penelope and Rickford, John R. (ed.), *Style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UP., 2001.
- Ehrlich, Susan, *Point of View: A Linguistic Analysis of Literary Style*, Routledge, 1990.
- Fauconnier, Gilles & Turner, Mark, *The Way We Think*, Basic Books, 2002.
- Fish, Stanley,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y*, Harvard UP., 1980.
- Fowler, Roger, *Literature as Social Discourse*,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 Ltd., 1981.
- Herman, David (ed.), *Narrative Theory and the Cognitive Sciences*, CSLI, 2003.
- Herman, David, *Storytelling and the Sciences of Mind*, The MIT Press, 2013.
- Holland, Norman N., *Literature and the Brain*, The PsyArt Foundation, 2009.
- Hickey, Leo (ed.), *The Pragmatics of Style*, Routledge, 1990.
- Lakoff, George and Johnson, Mark,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P.,

1980.

Sell, Roger D., *Literary Pragmatics*, Routledge, 1991.

Truner, Mark, *The Origin of Idea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Turner, Mark (ed.), *The Artful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Uttal, William R., *Mind and Brain*, The MIT Press, 2011.

Abstract

An Essay on the Deconstructive Conceptual Paradigms of
Local Literature
— with a reflectional speculation on the conceptual schema of
literary popularity —

Jang, Il-Gu(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terature is an aspect of linguistic performance. Language obtains an opportunity for progress by realizing the effects of ordinary linguistic performances and other communications through literary performances. But there is no specialized language that is different from ordinary language and specialized in the area unique to literature. Therefore, a conceptual schema for the legitimacy of literature that proves the aesthetic features that well embody the qualities of so-called *literary language* is nonsense. The marked signs defined by the conceptual schema of negative terms added to literature, such as *local literature* or *popular literature*, have no substance. In this context, it is essential to diagnose whether the conceptual schema derived from the *ideology of the Center* involved in literature is reasonable, and to reveal and disrupt the operation of the unjust ideology. This article corresponds to an essay that evokes this process.

(Keywords: local language, local literature, popular literature, local, pop, conceptual paradigm, conceptual schema, transboundary, deconstruction)

논문투고일 2022년 09월 26일

논문심사일 2022년 10월 1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1일